



제149회 발명교실

8월10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9회 발명교실이 지난 8월 10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주)고감도 김경환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윤동열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은숙 기>

플로피 디스크 보관함

(주)고감도 대표 김경환

컴퓨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의 주변 용품의 수요도 증가되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컴퓨터 공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컴퓨터 주변용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요가 예측되는 디스켓 보관함 개발을 목표

로 삼았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의 해결을 연구해 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기존의 디스켓 보관함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디스켓 착기가 불편했었고, 디스켓 정리가

1987년 이래 10여년간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우연히 문구공업협동조합의 요청으로 협회지 "문구보"에 디자인에 관한 기고를 해 오던 중 영세하고 낙후된 문구업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이슈로서 제시해 보고자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보관함의 대부분은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제품이 다수였다. 다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값비싼 외국산 제품뿐이었다.

퍼스널 컴퓨터의 보조 기억수단중의 하나로 디스켓을 널리 이용하고 있으나 먼지 또는 자력, 정전기 등에 의하여 저장중인 데이터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관시 항상 주의하여야 했다.

단순히 디스켓을 보관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디스켓을 찾기 위해 인덱스를 일일이 확인시에 양손 사용이 불가피 하였다.

또한 뚜껑이 상부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적층이 곤란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수납함을 서랍식으로 하고 서랍 내부 하단에 그릴을 설치하고 보관함 케이스의 저면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돌기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수납함을 왕복, 이동시킬 때 수납함 그릴내에 삽입된 디스켓 하단부가 걸리게 하여 이로 인한 순차적인 디스켓의 전후 운동을 유도하게 함으로서 손으로 넘겨보지 않아도 디스켓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스켓을 사용한 후에도 디스켓이 빠져 있는 위치를 쉽게 찾아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어 정리가 편리하게 하였다.

이 제품의 개발의 착상을 요약

해보면 디스켓을 찾는 노력과 수고의 최소화, 선진제품과 비교하여 제품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인, 부품 최소화로 생산시 조립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 상승요인 최소화, 최소공간내에 다량의 디스켓 보관이 가능, 디스켓 정리의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현재 특허를 프라스틱 제조업체인 모 중소기업에 실시권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댓가로 계약금 2천만원과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매월 받기로 하였다.

국내에 매년 5만개의 판매실적과 유럽과 동남아에 8만개의 수출실적을 갖고 있으며 곧 미국과 캐나다에 상당량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날로 변화되는 소비자의 취향과 생활 양식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창출되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편리성을 제공하여 제품의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켜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발특 9608**